# 119구급차 이용, 오전·남성·고령자 많아

### 시 소방본부 빅데이터 분석
### 이용자 40.8% 60대 이상
### 활동 방해 취객 난동은 여전

오전 시간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119구급 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을 마신 후 구급대원을 괴롭히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018년 119구급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19구급차 이용 빈도수가 높은 시간대는 오전 8~9시 11.2%, 오전 10~11시 10.4% 등으로 오전 8~11시에 전체의 21.6%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6100명으로 여성 2만2734명에 비해 6.8%(3366명) 많았다. 연령별 이송은 50대(18.1%), 70대(14.9%),60대(14.6%) 등 순으로 60대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

이처럼 오전시간대에 구급차 이용이 집중되는 것은 몸 상태 및 집중력이 한낮에 비해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활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남성이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을 해치는 위해요소에 많이 해당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 이용자의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장애요인'으로는 '음주자의 구급대원 괴롭힘'이 전체 구급활동 장애요인 3833건 중 20.4%에 해당되는 782건이었으며, 최근 6년 간(2013~2018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22명 중 90.9%인 20명이 음주상태로 집계됐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9car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9care 프로그램'은 소방관으로 구성된 전문 구급강사가 각 자치구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안전취약 계층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낙상사고 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다. 시 소방안전본부 김영돈 구조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만 6년 간 22건이었다"며 "응급환자를 위해 밤낮 없이 환자에게 달려가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소년 도시철도 체험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2일 광주시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청소년 철도동호회 회원 10 명을 초청, 도시철도 시설물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운전취급실 방문, 차량 내 안전시설 견학 및 수동운전 참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모든 전기안전점검 결과 5개 자치구와 공유한다

### 전기안전공사와 개선 합의

자치구의 비상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또 그동안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에 한해서만 결과에 대한 조치 불이행 사실을 자치구에 통보했던 것을 앞으로는 특별점검이나 요청점검 모두 자치구에 통보된다.

광주시는 24일 "최근 자치구, 유관기관 등과 3차례의 협업회의를 열어 지난해 동절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회의에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비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제도를 운영키로 하는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화재위험 취약시설인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그동안 전기설비에 대한 각종 점검 중 정기점검 결과(부적합사항 조치 불이행 사실)만을 자치구 에너지 관리부서에 통보했고 시설물 관리부서에는 공유되지 않았다.

그동안 전기설비 정기점검 외에 실시되는 특별(요청)점검 결과도 통보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협업회의에서는 또 지자체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통시장법 개정 사항을 관련 부서에 알리기로 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협업과 공조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차량 2부제 참여로 미세먼지 줄입시다"

### 광주도시공사 캠페인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가 지난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차량2부제 참여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공사는 이날 빛고을고객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2부제(짝수일은 짝수번호 운행, 홀수일은 홀수번호 운행) 시행에 참여를 당부하며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홍보했다. 또 공사에서 운영 중인 건설현장에는 미세먼지 저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토목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시간을 단축했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굴삭기, 지게차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를 권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공모

### 3월8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취약계층을 만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공모한다.

교육과정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 분야 인권규범과 최근 이슈, 실제 사례를 담은 분야별 전문강좌, 워크숍, 강의, 토론, 집단활동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시설종사자들이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 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습득해 사회복지현장 및 지역사회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신청은 22일부터 3월8일까지, 광주시 민주인권과(613-2072)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사업자를 선정해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도네시아·필리핀서 수영대회 홍보·관광객 유치 활동

### 여행업계 등 900명 대상 설명회
### 학교 방문 역사·문화·인권 소개

광주시와 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14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현지에서 여행업계 관계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교육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지 소도시인 반둥시, 치르본시, 테갈시, 미겔랑시 교육청 관계자와 교육여행업체 관계자에게 교육 도시 광주의 우수성을 알리는 설명회를 가졌다. 또 학교를 방문해 광주의 역사, 문화, 인권을 소개했다.

14일부터 18일까지는 인도네시아 현지 고등학교 교장단 및 교육관광 여행 업체 70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관광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등 국제행사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클락, 세부에서 현지 여행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 교육관광 등 고급형 지방 관광상품 기획을 위한 맞춤형 코스를 제안하는 등 관광마케팅을 펼쳤다.

시는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교육관광 특화 여행사 세일즈와 인도네시아 현지 교원 및 교육관계 특화 여행사 초청 팸투어를 실시해 11월 인도네시아 청소년 교육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

이명순 관광진흥과장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현지 광주 관광설명회 등을 발판삼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동남아 해외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세계수영대회 유연한 대테러·안전활동

### 광주시·국정원·지역테러대책협의회 기본계획 확정

광주·전남 지역테러대책협의회는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주관으로 광주시청 지하 충무시설에서 '2019년 제1차 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열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테러·안전활동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의장인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장, 광주·전남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전남 지역테러대책협의회는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수영대회 대테러·안전활동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협의회는 사전조율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단계별 계획에 따라 수영대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축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테러·안전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3월 중 비상설로 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조직위와 함께 대회 주요 시설별 대테러·취약요인 목표분석 및 현장점검 계획을 확정한다. 이어 5월까지는 대회 시설 테러·안전 취약요소를 점검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회기간 현장 맞춤형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6월부터 수영대회까지는 안전대책본부를 선수촌 내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해 현장 안전활동을 본격 시행하고,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 실시 및 테러·돌발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태세를 최종 점검한다.

광주시 이용섭 시장은 "세계수영대회는 광주·전남 발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 한반도 평화정착에 직결된 국가적 중요행사인 만큼 안전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테러·안전대책본부 단계별 구성계획에 따라 지원하겠다"며 "전문가들의 치밀하고 차질없는 안전대책 수립과 실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급매8억(대출3억5천만원 포함)**
2019년 2월 28일까지

문의. 010-6834-7400